

# 일본의 골든위크, 한국의 황금연휴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지난달 마지막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었다. 토요일부터 이어진 사흘간의 연휴 덕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고 한다. 5월의 파스한 봄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발길을 집 밖으로 이끌기 마련인데, 사흘간의 연휴로 많은 사람이 나들이에 나섰다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5월 초에도 연휴가 한 차례 더 있었다. 5월 1일(금요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 토, 일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화요일(5월 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이라 월요일(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5일 인파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5일 내외의 긴 연휴를 흔히 '황금연휴'라고 부른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간간히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덕분에 우리에게 5일 전후의 황금연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든위크(Golden Week)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의 골든위크도 5일 이상의 긴 연

휴를 언급하는 것은 같은데 그 유래는 또 우리와 다르다.

먼저 일본의 골든위크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최대 7일가량 이어지는 연휴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에 가깝다. 이는 1950년대 초부터 정착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후인 1948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祝日法)」을 제정하고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을 국민의 축일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에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裕仁)의 탄생일인 4월 29일이 1948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녹색의 날, 소와의 날(昭和の日)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유지되고 있다.

이어서 5월 3일 '헌법기념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도 1948년 같은 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8년 제정된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祝日法)」이 일본 골든위크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그리고 1973년 동법 개정으로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자동 휴일이 되면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흘간은 연휴가 고정되었다. 5월 1일 노동절은 일본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 자체 휴무를 실시하거나 4월 29일과 5월 3일 사이에 주말이 끼게 되면 장기간 연휴가 완성된다.

당초 골든위크의 유래는 이 기간에 일본

의 극장가에 관객 수가 급증하면서 흥행 수입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되자, 라디오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던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는 표현을 응용해 '골든위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언론들이 이를 널리 사용하면서 일반명사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본의 골든위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전성기와 함께 크게 늘어난 해외여행 덕분이다. 당시 엔화 강세로 인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일본 관광객의 하와이, 괌, 동남아, 유럽 여행이 급증하면서 그들은 세계 주요 관광지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했다.

한때 골든위크는 일본 경제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엔화 강세 시절 일본인 관광객은 세계 소비 시장의 큰손이었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외여행이 많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황금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 수 경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도 한국의 황금연휴를 역시 중요한 성수기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종이 한 장



기저 수집  
서예진  
(정치부)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사소한 물건 위에 서 있다. 투표소 책상 위에 놓인 투표용지 한 장이 그렇다.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그 종이 한 장이 부족했다.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를 관리한다는 기관에서 나온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기초적이라 어처구니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정질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선거를 마음대로 휘둘렀기에, 헌법을 통해 정권도, 정당도, 국회도 함부로 선거를 흔들 수 없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줬다. 선관위가 흔들리면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그래서 선관위는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그 엄격함의 잣대를 남에게만 적용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 며칠 뒤 다시 확인하니 91곳이었다. 투표용지 숫자도 못 세더니, 이젠 투표소 숫자도 못 세는 건가.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어,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고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안 되는 말을 뉘 수로 옹호하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먹잇감을 줬다는 점이다. 선거관리는 인간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번 건은 너무 치명적이다. 이러니 대통령과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현장 보고 체계, 비상 공급망, 책임자 문책, 사후 검증 방식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왜 늦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공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투표소가 열리고, 유권자 명부가 준비되고,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한다. 이 기초적인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안 운영을 견어치워야만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syj@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0일 (음 4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49년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1년생 건강에 무리가 있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관재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85년생 가까운 곳은 갈지라도 먼 여행은 피하세요.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나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있게 추진하세요.



51년생 먼저 말을 걸고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 매매나 거래는 좋지 않으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75년생 자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세요. 87년생 뜻대로 잘 안되니 마음이 힘듭니다.



52년생 지금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64년생 동료에게 덕을 베풀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88년생 혼자 하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세요.



53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자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77년생 뜻대로 일이 안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89년생 이성인이 좋더라도 너무 늦게 기약하지는 마세요.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희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 집니다. 79년생 혼자 도모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세요. 9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몸부터 돌보세요.



56년생 금전이나 문서 거래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0년생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는 격입니다. 92년생 사고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년생 분실운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69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고비만 넘기면 좋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생 서두르면 그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9년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71년생 시간을 끝낸 불리하니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이동이나 외출은 남쪽이 길합니다. 95년생 운이 좋으니 계획하던 것을 실행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마가(MAG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말로 '마가'를 빼놓을 수 없다. 마가(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말한다. 문장을 풀어보면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뜻이다. 문장 자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은 예전에 위대한 나라였는데 다시 예전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마가를 구호로 내세웠고, 두 번째 집권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국정 지표다. 국제 정세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가라는 말이 낯설 수 있다. 마가는 트럼프 시대의 정치적 상징이면서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마가의 유래는 1980년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레이건은 미국이 경제 위기에 처하자 세계 최강국의 자부심을 되찾자는 취지로 마가를 대선 구호로 사용했다.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희망과 미국 우선주의를 결합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트럼프도 비슷한 효과를 노렸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였지만, 제조업이 흔들리고 재정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는 '다시 위대하게'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번영하는 나라였던 예전의 향수를 자극했다. 마가라는 표현에는 일자리, 무역, 이민, 안보 같은 미국이 현재 처해있는 다양한 이슈가 모두 담겨있다. 다른 나라를 돕기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투입한 돈을 미국 내부에서 써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마가를 모르면 미국을 알 수 없고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없다. 마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9	8	1	9	2	6	
8	9	1	2	6	9	7	2	8
1	6	9	2	7	2	8	9	8
9	1	2	8	7	6	8	9	8
9	2	8	6	1	2	2	7	9
2	8	7	9	9	6	8	1	2
7	2	6	8	9	2	9	2	1
6	8	2	7	2	9	1	9	2
2	9	9	1	2	8	2	6	7

6	6	9	2	7	8	2	1	9
2	9	2	1	6	8	9	7	8
9	7	1	2	9	2	6	8	8
8	9	7	9	1	2	6	8	2
6	8	2	9	2	1	9	2	2
2	2	9	8	9	6	8	7	1
1	2	6	2	8	7	9	8	9
9	2	2	9	8	1	7	2	6
7	1	8	6	9	2	9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